



아이들의



66

무료하게 집에만 있기보다 밖으로 나와 활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할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99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꽃우물공원을 담당하는 어르신들은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어린이놀이터 방역을 해왔다. 이전에는 다른 공익 사업에 참여하다가 3년 전부터 활동처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언뜻 조그맣게 보이는 놀이터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손길이 어디에 닿을지 몰라 어느 한 곳 소홀하지 않게 구석구석 방역을 진행한다.

한 달에 열 차례, 정기적으로 방문해 방역활동을 해온 덕일까. 어느덧 놀이터를 자주 찾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익다. 이제는 이곳을 자주 찾는 아이들도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이 나타나면 방역활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사업단 어르신들은 내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성스레 방역활동에 나선다.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어르신들은 한 손에는 소독 타월, 다른 한 손에는 소독제를 들고 각자 맡은 구역을 정성껏 방역한다. 그날그날 세심하게 방역을 진행해도 야외에 있는 놀이터는 며칠이 채 가기도 전에 금세 방역할 거리가 생겨난다. 젊은 날 교단에 섰던 김순옥 어르신(백석동, 79세)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사업단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모래밭이 있는 놀이터는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아이들이 맨손으로 모래를 집어다가 놀이기구에 펼쳐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방역하게 됩니다.” ‘우리 손주’ 같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일까. 몇 년 동안 해온 방역활동인데도 어르신들의 손길에는 소홀함이 없다. 여름 장마를 앞둔 요즘은 더 나은 방역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 중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방역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어르신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지금껏 해온 대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진심. 그렇게 오늘 하루도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어린이놀이터 지도봉사 및 방역활동 사업단 바로가기



웃음소리 지킴이



어린이놀이터 지도봉사 및 방역활동 사업단

- 활동내용** 어린이놀이터 소독, 공원 운동기구 시설 소독 및 환경정화를 지원하는 활동
- 활동지역** 고양시 내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 활동시간** 월 30시간, 월 10회, 일 3시간